

마 두 1 동 새 마을 부 녀 회

# 새해 ‘떡국 한 상 나누기

글. 사진. 오경아(마두1동 새마을부녀회 총무)



※ 마두1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마두1동 새마을부녀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우한 이웃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자 배상은 회장과 회원 및 직능단체 봉사자분들과 겨울나기 큰 행사 중 하나인 김장 행사를 지난해 11월에 진행했다. 행사를 마친 후, 새마을 지회 동 부녀회 지원사업으로 아껴두었던 비용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고심했고 회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웃에게 선물 같은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마다 반찬 봉사를 할 때면 가장 소외되기 쉬운 이웃이 지역 내 취약 계층분들과 한부모가정 등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할 이웃들이 있다. 때로는 직접 방문하여 안부 인사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도 보고 말벗도 되어 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작은 정성을 나누고 함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추운 줄도 모르고 이웃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버섯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한 소불고기와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맛있는 동그랑땡과 새해에 꼭 빠지지 않는 새하얀 떡국을 준비하였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메뉴로, 정성이 한가득 담긴 음식 꾸러미들이다. 직능단체 위원들과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니 따뜻했던 봉사. 마두1동 봉사자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의 뜻에 공감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사랑의 집에는 장애인 8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언제나 서로 돕고 살피는 것은 물론, 작은 것 하나까지 함께 나눈다. 그런 이웃들이 반찬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손이 점점 바빠진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웃들의 밥상에 올랐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노고가 눈처럼 녹아내렸다.

50가구 이상이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떡국과 맛있는 음식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새마을 지회와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코로나로 우울한 날이 지속하고 있지만, 새해를 맞아 모처럼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꼭 새해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어느 때 “이렇게 추운데 수고가 많았겠다”라며 미안해하시면 오히려 죄송스럽기도 하다. 때론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로해주시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이웃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간직하며 마두1동 부녀회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할 것이다.

자 치 공 동 체 지 원 센 터

# 모두가 함께 만든 마을소통 공간

글. 사진. 서화정(문촌13단지 마을소통협의회 회원)



※ 주업2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일 곳이 없어 소통이 어려웠던 우리 마을에 지난해 12월, 마을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꿈과 목표로 사람들이 뭉쳤다. 먼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노인회 임원, 통장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모였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자문과 안내로 공동체교육, 주민자치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마을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지하주차장 내 창고를 커뮤니티 센터 장소로 선정하고 전체 주민에게 장소 이용 동의를 받았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꿈터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지하시설의 공기 질 개선 방안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 시에 안전한 이동로 확보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을꿈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이 기본 소식을 전 주민에게 알리면서 마을소통 공간의 이름을 공모, 주민 전자투표 결과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란 명칭이 선정되었다.

이름은 정해졌지만, 마을소통 공간을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집, 전문가를 초빙한 상상교육,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기획회의를 이어갈수록 의견은 다양해지고, 예산은 점점 제한됐다. 결국, 모든 욕심을 버리고 초등학교와 어르신들의 쉼터에 적합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에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공동사용에 무리가 없는 견고함과 물에도 안전한 초발열마루로 바닥 소재를 결정했다. 높은 층고를 이용해 공기순환에 유리하도록 천정을 활용하고, 장래 형편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도 준비했다. 천정형 냉난방기와 빔프로젝트는 중고제품으로 설치했다. 입주민의 재능기부로 공간 내벽에 수성페인트를 칠하고 센터 앞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해 예폭시 도장 후, 배수로 덮개를 설치했다. 기증받은 테이블과 의자, 노인회 총무가 설치한 방송시설과 스크린, 재활용품을 일부 활용하여 커뮤니티센터를 꾸미니 아주 훌륭한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가 탄생하였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이해와 절충, 대안 제시로 공동주택에서도 아름다운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 문촌마을13단지는 2021년도 고양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동주택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앞으로 ‘소담소담 커뮤니티센터’는 단지뿐 아니라 주업2동 주치자치회와 함께, 더 나아가 고양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이 탐스럽게 자라고 입주민의 정과 사랑이 넉넉히 채워져 살기 좋은 아파트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다. 🌈